

‘무장기포의 함성, 한국의 오늘이 되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기념식 참석
고창동학농민혁명, 국가 민주주의의 시작 알리

전북 고창군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을 알렸다.

정부 기념식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를 비롯해 정기백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용선 고창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사업의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특히 이날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의 비서로 알려진 정백현(공음 출신)의 증손녀 이삼옥씨가 유족등록증지서를 전달 받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4월 25일 무장기포기념제를 시작으로 5월2일 무장음성축제까지 8일간 무장기포기념주년을 실시했으며, 특별관전,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동학명사특강, 동학 하우스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고창군은 '무장포고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개관', '군청 앞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무장기포지(무장기포역사관, 수구박물관, 역사공



고창군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을 알렸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원 등)와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정비하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중이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은 "동학농민혁명은 132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 뿌리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 의식의 근간이 됐다"며 "다양한 선양 사업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탄탄히 다지면서 고창동학농민혁명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무주소방서, 베테랑 소방관 소방경 승진 임명

무주소방서는 11일, 재난 현장 안전의 파수꾼으로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4명에 대한 소방경 근무 승진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임명장 수여식의 주인공인 이용수·정경희·조정범 강장회 소방경은 지난 수십 년간 화마와 거친 구조 현장에서 도민을 지켜온 베테랑들이다.

특히 이번 '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을 통해 이들은 실무와 관리를 잇는 가교로서 재난 현장의 안전과 작전 성공을 책임지는 '최전방의 전라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소방서는 이번 승진 임명을 통해 조직의 중추가 더욱 견고해졌으며, 이들이 쌓아온 풍부한 실전 노하우가 도민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안전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계급장과 함께 현장의 핵심 리더로 거듭난 승진 대원들은 "새로운 계급장은 군민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내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현장에서 쌓아온 노력함에 냉철한 판단력을 더해, 안전한 무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무주=손흥기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6 고창과학축전 성료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5월 9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6 고창과학축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전은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창의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고창미래과학연구회가 주관하고 전북과학문화가람센터(국립근대대학교) 및 전주교육대학교 에듀테크소프트웨어 공동 운영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높였으며, AI·디지털·과학·영재교육을 아우르는 총 42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동형 AI 디지털 체험버스 △스카이킥 드론체험 △에듀테크 활용 AI 메이킹 △생활 속 과학 원리를 탐구하는 창의융합 부스 및 스텝부트어 등으로 참가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또한 현장에는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 40여 명의 교원이 참석하는 등 교육 현장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고창미래과학연구회 이경철 회장은 "연구회 소속 선생님들의 노력과 고민을 더한 부스 주제 선정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배움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사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였다. 전주교과 예비교원들도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에서 접한 에듀테크 기술을 실제 학교 밖 교육 현장에 적용해 봄으로써, 예비교원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역량을 실무적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평소 교실에서만 보던 AI와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해 보니 과학이 훨씬 친숙하게 느껴졌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도마지파 전주교회서 2026 말씀대성회

전주에서 전·현직 목회자들이 신천자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자예수교회)의 후속 교육 과정에 등록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9일 전주시 도마지파 전주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성취 실상 증거'를 주제로 2026 신천지 말씀대성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전·현직 목회자 150여 명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이민희 총회장의 강연 직후 열린 2부 목회자 포럼에서 포착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포럼에서 기독교 분열의 원인과 하나 된 길,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의 가감의미를 주제로 논의한 끝에, 포럼에 참석한 목회자 71명 전원이 신천자예수교회의 후속 교육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전봉준으로 또 교단에 배타적인 신학 색채가 짙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목회자들은 "명확한 말씀이 곧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점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교단 간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교계 화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남원시, '만원임대주택' 피움하우스 3호점 최종 입주자 확정

남원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만원임대주택(피움하우스 3호점)의 최종 입주자 25세대를 확정했다.

이 사업은 남원시가 (주)부영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입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입주 전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기본적인 공사를 진행해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 단 1만원이라는 조건은 "한 끼 밥값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격적이며, 총 79세대가 신청해 약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남원시는 지난해 피움하우스 1호점(11세대)을 시작으로 만원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3호점 공판까지 이어지며 청년 인구 정착과 유입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부터 튼튼하게... 정읍시 '2026 귀농귀촌아카데미'

정읍시는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관내 선도 농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2026년 귀농귀촌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 교육 이력이 없거나 기초 소양 교육이 필요한 초기 입문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예비 귀농인들이 농촌 생활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관련 정보 부족과 경험 미숙, 창업 준비 과정의 시행착오를 체계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자체 농업 정책 활용법, 정읍시 지역 역사와 문화, 올바른 농약 사용법, 선도 농가 방문을 통한 현장 맞춤형 재배 실습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교육 후반부에는 선도 농가와 간담회를 열고 맞춤형 영농 설계와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컨설팅)을 진행해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

시는 이번 과정을 통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이론 교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육에서 벗어나 현장 실습과 농가 맞춤형 자문을 함께 펼쳐 교육생들이 수료 후 실제 영농 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이끌어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지리산낙농·남원원예농협 '맞손'

전북지리산낙농협과 남원원예농협이 지속가능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전북지리산낙농협 회의실에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축산·원예산업 연계를 통한 상생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들어 경종농가에 공급하고, 경종농가에서는 조사료와 농업 부산물을 다시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친환경 순환농업 방식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협경제지주 친환경건설팅방역부 축산환경국 김우진 국장과 전북농협 안전우 경제본부장,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 김중주 지부장, 전북지리산낙농협 김재욱 조합장, 남원원예농협 김용원 조합장, 남원시 최준호 축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축순환농업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고품질 가축분 퇴비 생산·유통 △경축순환농산물 판로 확대 △조사료 생산 시 가축분 퇴·액비 적극



활용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남원시 운봉읍 농가에서 조사료와 발작물 재배에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는 시연회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토양개량 효과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경축순환농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상근 기자

상서면 지사협, 어버이날 선물꾸러미 나눔 실천

부안군 상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진민, 민간위원장 박춘섭)는 지난 8일 상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맞이 선물꾸러미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홀로 생활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협의체 위원들이 상서면 29개 마을의 취약계층 어르신 2~3명씩 발굴해 80명의 어르신에게 공

음료와 각 티슈를 전달했다.

박춘섭 민간위원장은 "선물꾸러미 전달과 안부확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 진행으로 지정기탁 등 후원이 모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민 공공위원장은 "위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이번 선물이 어르신들께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 살기 좋은 상서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장수산림조합, 천천면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장수군 천천면은 장수군산림조합(조합장 한상대)이 천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수군산림조합은 평소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나눔 문화 확산과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된 나눔은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고 있으며, 지역 복지체계 강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금동, 수제 딸기잼 나눔



남원시 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금동 직원들이 정성으로 만든 딸기잼을 들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 수제 딸기잼을 갖고 단순한 전달을 넘어, 직접 수확하고 정성껏 만든 마음까지 함께 전

해진 하루를 보냈다. 협의체 위원들과 동 직원들은 지난 5월 8일 금지면의 한 딸기 농가를 찾아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2동에서 직접 딸기 60kg을 수확해 딸기 꺾지를 따고 세척하는 손길을 거쳐 달콤한 무방부제 수제 딸기잼을 만들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번 나눔은 지역 농가의 기부로 시작돼 '지역이 지역을 돕는 선순환'의 의미를 담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 장계면 지사협, '효 박스' 나눔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임재성)는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에게 '효(孝) 박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역 내 취약 어르신을 직접 발굴해 추진한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효 박스는 설렁탕, 도가니탕, 곰탕 등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5종과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한 물티슈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됐으며,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꾸러미 형태로 준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효박스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폈다. /장수=고관호 기자